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순정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문 요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50%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각종 요인들과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동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및 자아실현 동기 등 경제활동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I. 서론

1.1 연구배경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50%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의 향상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이는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한운옥, 2020). 조혜선(2003)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음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조차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 장기적인 커리어를 전망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소수인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가진 구조적 측면과 연관지어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은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손정연·한경혜,

2014).

현대사회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결혼과 동시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모정희·김금란, 2018).

Daniel(2012)는 그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통해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지식과 정보 및 데이터 그리고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남성들보다 감성적이며 섬세함이 강점인 여성들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여성 주도적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Daniel, 2012, 한운옥, 2020).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인력의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영위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더욱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선한승, 2010). 그러나 코로나19 발원과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은 여성 노동시장에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및 환경적 요인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들에게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박선영, 2020). 이렇듯 가정과 노동시장에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juliak3809@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kyusoo@naver.com

· 투고일: 2021-01-11 · 1차 수정일: 2021-02-15 · 2차 수정일: 2021-02-23

· 게재확정일: 2021-02-25

서 여성이 처해져 있는 불리한 상황은 여성들이 취업현장에 소극적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2년째가 되었다. 이 법은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더불어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후 노동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족주성과 함께 가구의 형태변형으로 여성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여성가구주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여성들의 혼인기피 및 늦은 결혼으로 인해 저출산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임신,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등 여성의 성차별적 구조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디지털시대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용취약 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박선영, 2020), 더불어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 등의 제약요인이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활동이나 근로의욕 등의 연구들은 모든 근로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하거나 시니어들의 창업의지 또는 재취업 의지를 다루고 있어 여성만의 경제활동 의욕을 논의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설명하는데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 및 사회의 지원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경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여성의 사회참여의 심리적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족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동시에 미래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를 창업의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경제활동 지속의지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의식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활동 욕구라 한다. 백인자(2016)는 직업과 일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직업을 상실하는 것은 곧 정체성의 상실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위치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지속의지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여성노동력의 잠재성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 정책수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송징징, 2015).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송징징(2015)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 시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양과 질적 수준, 나아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유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들의 적극성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몰입도 및 참여 지속 의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여성들의 현재 경제활동 실정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 동기를 확인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김민정, 2016).

곽현주·최은영(2015)은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함께 여성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또한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탐색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원숙연(2014)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엄마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인지, 보육관련 정책인지, 인식의 영향인지 정책의 영향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노동력의 잠재성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2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동기

Diefendorff & Chandler(2010)는 동기(Motive)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한황원·하규수(2020)는 교육학, 심리학, 전략경영 등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개념으로써,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이라고 하였다. Deci & Ryan(1985)은 자기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통해 동기를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으며, 내적 동기는 “자기개발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적극적, 성장지향적 본질의 동기화된 예시화(instantiation)”로 정의하였다 (Vansteenkiste et al., 2006). 내적 동기는 자기결정과 역량에 대한 욕구에 의한 동기를 말한다(Deci & Ryan, 1985). 외적 동기는 “구체적 결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Deci & Ryan, 2000).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 흥미, 자기표현, 및 도전의 정도가 높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돈이나 명예, 자격, 및 칭찬을 얻으려고 한다(여경환 외, 2019).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여 참여하는 것을 경제적 동기로, 금전적 보상을 제외한 자아실현 및 정체성 확립, 사회참여 등 모든 요소들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2.2.1 경제적 동기

김민정(2016)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참여동기로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한운옥(2020)은 경제적 욕구는 가족의 생계비용을 감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 및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욕구 등 경제 생활과 관련된 제반 욕구로 정의하였다.

성취동기 이론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목표에 대해서도 위협을 감수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과를 실현시킨다고 하였다(McClelland, 1961; 한향원·하규수, 2020).

김민선·서영석(2016)은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를 여성들이 사회적인 제약과 다중역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Blau, 1993; Miceli & Castelfranchi, 2000), 기존 여성들의 진로 지속 경험을 탐색한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필요성과 독립,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애, 2010; 윤혜경, 2007; 장서영, 2008; 조순일, 2009; Jang & Merriam, 2004; 김민선·서영석, 2016). 신연하·이동명(2017)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가 생계와 경제적 이유,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인간관계와 소속감 등이 있으나 생계와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제적 동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자아실현 동기

한향원·하규수(2020)는 자아실현욕구에 대해 1943년 Abraham Maslow가 저널에 게재한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으로 가장 상위욕구에 있으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하게 하고 최대한 잠재력을 완성하려는 욕구라고 하였으며, Murray(1938)은 자아실현 욕구는 개인의 성취욕구에서 비롯하여 주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 숙달과, 스스로를 통제하며 자신이 설정한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로 정의하였다. 이상원(2014)은 자아성취를 인간에게 내재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용하고, 발휘하여 이상적인 자기가 되는 것 즉 현재 또는 미래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또는 자기의 이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박남태, 2017). 또한 신경아(2016)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개인적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을 위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선택할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욕구가 강할수록 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며, 개인적 욕구보다 낮은 일자리로 취업을 했을 경우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도가 낮고, 노동시장에서 재이탈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적 욕구와 성향을 보완해주는 직무나 직종에 재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직업만족도 및 자아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을 통한 즐거움, 사회에의 공헌, 자존감, 가치관 확인, 일을 통한 성취, 성공을 위한 목표, 일에 대한 애착, 등 자아실현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지속하고 있다(김민선·서영석, 2016). 김민정(2016)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정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남성들의 참여동기와 다르게 자아실현 및 성장,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 하였다. 대부분 질적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이며, 시니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 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아실현 동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일에 대한 인식

곽현주·최은영(2015)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이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으로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남성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여성은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윤영득, 2017). 임한려·홍성표(2020)는 일이 가정에, 가정이 일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일은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의 일은 생산하는 공간이고,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경제활동과 함께 가족에게 부여되었던 많은 가치, 의미들을 개인인 여성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누구나 원하고 꿈꾸는 삶에 대한 동경과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대안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움직임이 넓어지고 있다(김미선 외, 2017). 이제 여성과 일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욕구와 자아의 의미를 실현하는 조건들이 더 계층화 되어가고 있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과 열정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지속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일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정부 지원제도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윤영득, 2017).

가족친화 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한려·홍성표(2020)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지원센터의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을 활용하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윤영득(2017)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도에 대한 효과성 및 인식수준은 가정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원으로,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순이다.

한편, 정부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창업자금지원, 마케팅, 교육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에서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최진숙 외, 2019).

김민영(2020)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고,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여성기업에 대한 개념과 지원정책 등 여성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1995년 2월 5일 제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과 균등한 위치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을 돕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정부지원제도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가족지지만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인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말하는데,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에 가족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족 구성원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Manning-Walsh, 2005),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한편, 자녀 출산이나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경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진로장벽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최유진·손은정, 2016).

가족지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 체계가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존중으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해주는 사랑과 지지를 상호 교환하는 중요한 기능을 의미한다(Manning-Walsh, 2005).

홍성표(2019)는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의 개념에서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가족으로 특정한 것으로 가족이 나에게 제공하는 물질, 정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의미한다. 가족지지의 하위요인은 House(1981)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과 동일하며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Schonfeld(2001)은 가족지지를 자연 발생적인 인간 집단으로 긍정적 정서가 높고 상호작용의 횟수가 많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것이라 정의하였고, 양대현(2016)은 가족구성원이 개인에게 주는 모든 애정, 관심, 정서적 안정,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원조를 포함하는 것을 가족지지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가족지지는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의지나 결정 선택의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하였다(장영미, 2018). 또한, 손영미·박정열(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기혼 직장여성의 워라벨(WLB; work-life balance)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했으며, 특히 가족지지는 일·가족 균형의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주 외, 2020).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가족지지가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인식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여가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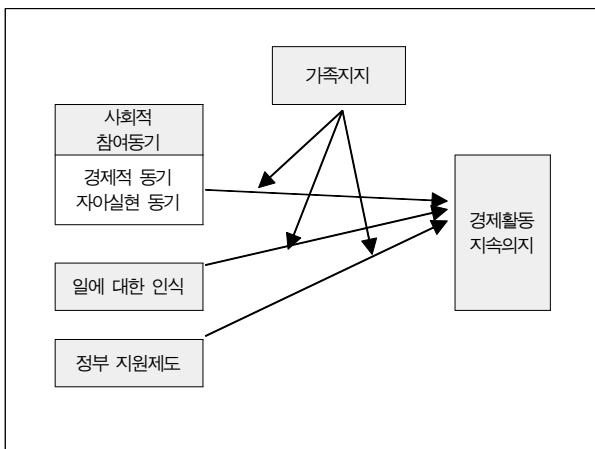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정부 지원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여성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정부 지원제도 인식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경제적 동기 및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과 정부 지원제도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도 가족지지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형식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경제적 동기는 “경제적 욕구와 책임감에 대한 정도”라 정의하고, 한운옥(2020), 김민정(2016) 등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우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실현 동기는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보람과 성취에 대한 정도”라 정의하고, 신경아(2016), 김민선·서영석(2016), 한향원·하규수(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원 및 정책만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어, 여성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여성의 일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라 정의하고, 김미선 외(2017)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여성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라 정의하고, 강병승(2020), 김종명(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 많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지지는 “가족들이 신뢰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정도”라 정의하고, 홍성표(2019), 한운옥(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의 가족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제활동 지속의지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 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라 정의하고, 김민정(2016) 등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으며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연령, 학력, 소득, 기대소득, 재산상태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대소득과 재산상태를 포함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포함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연구 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선행 연구	
경제 활동 지속 의지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 하고자	1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	김민정 (2016) 송진경 (2015)
		2	나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는 의지의 정도	3	나는 잠시 일을 중단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	
		4	나는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5	나는 일을 중단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경제적 동기	경제적 욕구와 책임감에 대한 정도	1	나는 우리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한운옥 (2020) 김민정 (2016)
		2	나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	
		3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많다	
		4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5	내가 일을 한다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자아 실현 동기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보람과 성취에 대한 정도	1	나의 경제활동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다	신경아 (2016) 김민선·서영석 (2016) 한향원·하규수 (2020)
		2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3	나는 능력을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	
		4	나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	
		5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여성의 일 인식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1	나는 여성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미선 외 (2017) Ruderman et al (2002) Greenhaus et al (2003)
		2	나는 일을 하는 여성이 좋아보인다	
		3	나는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여성이 성과를 더 잘내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 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1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 많다	김민영 (2020) 강병승 (2020) 김종영 (2020)
		2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3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다	
		4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5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가 많다	
가족 지지	가족들이 신뢰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정도	1	나의 가족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한운옥 (2020) 홍성표 (2019) 장영미 (2018) House(1981) Manning-walsh(2005)
		2	나의 가족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봐 주는 편이다	
		3	나의 가족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4	나의 가족들은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가까이 도와줄 것이다	
		5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 도와줄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450건의 설문 응답을 받아,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406건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수행하고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주성분 분석과 적교 3회전 방법을 활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를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확률($p < 0.05$)에서 판단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표본인은 국내 근로여성 406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도록 구성하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학사가 234명(57.6%)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72명(17.7%), 전문대학 60명(14.8%), 석사 35명(8.6%), 박사이상 5명(1.2%)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250만원이하가 144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하 112명(27.6%), 350만원이하 77명(19.0%), 450만원이하 35명(8.6%), 550만원초과 24명(5.9%), 550만원이하 14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500만원초과가 210명(51.7%)으로 500만원이하 196명(48.3%)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수준이 186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넉넉한 편 145명(35.7%), 매우 넉넉한 편 48명(11.8%), 부족한 편 20명(4.9%), 매우 부족한 편 7명(1.7%)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수(N=406)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령	20대	102	25.1	25.1
	30대	102	25.1	50.2
	40대	102	25.1	75.4
	50대 이상	100	24.6	100.0
학력	고등학교	72	17.7	17.7
	전문대학	60	14.8	32.5
	학사	234	57.6	90.1
	석사	35	8.6	98.8
본인 소득	박사이상	5	1.2	100.0
	150만원 이하	112	27.6	27.6
	250만원 이하	144	35.5	63.1
	350만원 이하	77	19.0	82.0
	450만원 이하	35	8.6	90.6
	550만원 이하	14	3.4	94.1
기대 소득	550만원 초과	24	5.9	100.0
	500만원 이하	196	48.3	48.3
재산 상태	500만원 초과	210	51.7	100.0
	매우 부족함	7	1.7	1.7
	부족함	20	4.9	6.7
	보통	186	45.8	52.5
	넉넉함	145	35.7	88.2
	매우 넉넉함	48	11.8	100.0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여성의 일 인식 평균값이 4.0640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동 지속의지가 3.7310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지원제도 인식의 평균값이 3.155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부 지원제도 인식 홍보 미비 등,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원제도 탐색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활동 지속의지	1.00	5.00	3.7310	.74831
경제적동기	1.40	5.00	3.6739	.59151
자아실현동기	1.00	5.00	3.7931	.67813
여성의일인식	1.40	5.00	4.0640	.63280
정부지원제도	1.00	5.00	3.1552	.70319
가족지지	1.40	5.00	3.7453	.65536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30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실현 동기 1번 문항이 탈락하고 여성의 일 인식, 경제활동 지속의지, 가족지지, 지원제도 인식,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등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고유값은 각각 3.887, 3.786, 3.772, 3.767, 2.548, 2.355이며 전체 설명력은 69.365%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성 분석결과 각각 0.890, 0.908, 0.895, 0.907, 0.734, 0.847로 나타나 모두 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KMO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형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닌 상관행렬로 나타나($p < 0.05$)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표 4> 연구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하위요인	관측변수	1	2	3	4	5	6
여성의 일인식	여성의일인식5	.821	.180	.140	-.019	.153	.073
	여성의일인식4	.807	.139	.145	.008	.142	.087
	여성의일인식3	.785	.168	.220	-.059	.129	.215
	여성의일인식2	.675	.309	.164	.046	.207	.213
	여성의일인식1	.662	.196	.287	.011	.128	.199
경제활동 지속의지	경제활동의지5	.184	.776	.161	.150	.119	.068
	경제활동의지4	.195	.765	.183	.093	.066	.247
	경제활동의지1	.224	.728	.273	.074	.113	.285
	경제활동의지3	.258	.716	.247	.122	.238	.188
	경제활동의지2	.172	.711	.282	.161	.213	.221
	경제활동의지4	.172	.711	.282	.161	.213	.221
가족지지	가족지지3	.184	.101	.836	.080	.092	.092
	가족지지2	.100	.231	.824	.015	.049	.005
	가족지지1	.195	.178	.815	.129	.131	.124
	가족지지4	.244	.262	.745	.097	.113	.142

	가족지지5	.218	.165	.642	.204	.123	.178
정부 지원제도	지원제도3	-.008	.150	.072	.879	.023	.044
	지원제도5	-.015	.065	.066	.856	.001	.035
	지원제도4	.024	.188	.051	.831	.007	.053
	지원제도2	.002	.057	.065	.821	.087	.084
	지원제도1	.012	-.001	.147	.817	.090	.040
경제적 동기	경제적동기4	.183	.066	.088	-.005	.752	.235
	경제적동기3	.069	.334	-.089	.087	.671	-.276
	경제적동기2	.073	.126	.153	.056	.582	.216
	경제적동기1	.329	.190	.258	.088	.574	.261
	경제적동기5	.403	.026	.193	.053	.568	.210
자아실현 동기	자아실현동기3	.264	.318	.208	.048	.238	.668
	자아실현동기2	.217	.375	.098	.167	.156	.663
	자아실현동기4	.426	.221	.221	.077	.171	.660
	자아실현동기5	.176	.350	.097	.115	.328	.526
	자아실현동기1	.264	.318	.208	.048	.238	.668
Eigen Value	3.887	3.786	3.772	3.767	2.548	2.355	
% of Variance	13.404	13.055	13.009	12.990	8.788	8.121	
Cumulative %	13.404	26.458	39.467	52.457	61.244	69.365	
Cronbach's α	.890	.908	.895	.907	.734	.847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928/0.000($\chi^2=7466.316$, $df=406$)						

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표 5>와 같이 법칙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지속의지는 모든 독립변수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법칙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독립변수 모두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일 인식과 정부 지원제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바, 물적 및 양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직업관의 확립 등 질적 차원의 정부지원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수	1	2	3	4	5	6
경제활동 지속의지	1					
경제적 동기	.506**	1				
자아실현 동기	.672**	.564**	1			
여성의일 인식	.551**	.531**	.618**	1		
정부지원제도	.280**	.173**	.237**	.067	1	
가족지지	.551**	.388**	.489**	.511**	.246**	1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 학력, 본인소득, 기대소득, 재산상태를 통제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표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은 연령 50대 이상, 학력 대학교 졸업, 본인소득 150만원이하, 기대소득 500만원이하, 재산상태 보통수준을 각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 본인소득 250만원이상, 450만원이하 소득자는 150만원 이하 소득자보다 경제활동 지속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공차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상수)	.120		29.465	.000	.226		-1.020	.309	
연령더미_20대	.112	-.028	-.439	.661	.079	-.012	-.253	.800	.571
연령더미_30대	.112	.055	.850	.396	.079	.029	.622	.534	.571
연령더미_40대	.106	.024	.387	.699	.075	.013	.290	.772	.630
학력더미_고졸이하	.110	.044	.776	.438	.078	-.020	-.489	.625	.751
학력더미_전문대졸이하	.110	-.020	-.387	.699	.078	.028	.742	.459	.876
학력더미_석사이하	.136	.086	1.677	.094	.097	.098	2.709	.007**	.913
학력더미_박사이상	.350	.056	1.086	.278	.248	.020	.549	.584	.899
본인소득더미_250이하	.099	.125	1.979	.049*	.071	.047	1.032	.303	.592
본인소득더미_350이하	.118	.204	3.302	.001**	.085	.100	2.240	.026*	.611
본인소득더미_450이하	.153	.164	2.846	.005**	.110	.062	1.506	.133	.701
본인소득더미_550이하	.218	.029	.543	.587	.156	.038	1.001	.317	.835
본인소득더미_550초과	.180	.070	1.236	.217	.129	.037	.902	.368	.730
기대소득더미_500초과	.081	-.052	-.956	.340	.057	-.021	-.556	.579	.822
재산더미_최상	.299	-.038	-.724	.469	.214	.023	.615	.539	.872
재산더미_상	.180	.014	.268	.789	.127	-.011	-.289	.773	.887
재산더미_하	.085	.003	.056	.955	.061	.014	.345	.730	.782
재산더미_최하	.123	-.019	-.365	.715	.089	-.011	-.277	.782	.810
경제적동기					.058	.110	2.397	.017**	.571
자아실현동기					.054	.434	8.795	.000**	.496
여성의일인식					.056	.214	4.506	.000**	.535
정부지원제도					.040	.145	3.864	.000**	.852
통계량	R=.250, R ² =.062, 수정된 R ² =.021, F=1.517, p=.085				R=.732, R ² =.536, 수정된 R ² =.511, F=21.158, p=.000, Durbin-Watson=1.967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연령, 학력, 소득, 기대소득, 재산상태를 통제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2를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2에서는 석사 졸업자가 대학교 졸업자보다 경제활동의욕이 높았으며 본인소득 250만원초과 350만원이하의 여성만이 소득 150만원이하 여성보다 경제활동 지속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F=21.158, p=.000),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설명력은 53.6%로 나타났다. 공차는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인식은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실현 동기($\beta=0.434$), 여성의 일 인식($\beta=0.214$), 지원제도 인식($\beta=0.145$), 경제적 동기($\beta=0.11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4.4.1 경제적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beta=0.110$, $t=2.397$)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검정 결과 경제적 동기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운옥(2020)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동기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문결과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여성에게도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므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민영(2020)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4.4.2 자아실현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실현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beta=0.434$, $t=8.795$)를 지지하고 있다. 가설에 대한 유의한 결과값으로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해 자아실현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개인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신경아(2016)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계유지라는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과를 이루려는 성취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4.3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다($\beta=0.214, t=4.506$).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일에 대한 여성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 동기가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 머물지 않고 자아실현을 위한 무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을 통해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도 한다. 일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4 정부의 지원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제도 인식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하고 있다($\beta=0.145, t=3.864$).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 인식 수준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 및 정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는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정부정책이나 다양한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 또한 높아질 것이다.

4.4.5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본 연구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제도 인식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가족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정부지원제도와 경제활동 지속의지 간에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일 인식과 경제활동 지속의지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 3의 R^2 값이 모형 1과 모형 2의 R^2 값보다 크고 R^2 변화량은 0.013으로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가족의 지지는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장영미(2018)의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은 여성 스스로 경제활동 참가 자체에서 존재의 의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발현되기 쉬우며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의지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본 연구는 확인해 주고 있다. 반면 외부환경에 의한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 동기나 정부지원제도는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이든 낮은 집단이든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적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7>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조절 변수	독립 변수	모형	경제활동의욕				판단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F 변화량 유의도	
가족 지지	경제적 동기	모형 1	.525	.525	62.763	.000	기각
		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54	.000	.178	.673	
	자아실현 동기	모형 1	.525	.525	62.763	.000	기각
		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54	.000	.005	.009**	
	여성의 일인식	모형 1	.525	.525	62.763	.000	채택
		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67	.013	2.287	.045*	
정부지원 제도	모형 1	.525	.525	62.763	.000	기각	
	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54	.000	.037	.847		

1) *. $p<0.05$, **. $p<0.01$

2) 모형 1: 독립→종속(변수), 모형 2: 독립, 조절→종속(변수), 모형 3: 독립, 조절, 독립X조절→조절(변수)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동기 및 자아실현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동기와 더불어 자아실현 동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꾸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이루려는 열정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에 대한 인식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가족의 지지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의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가족과 일에 대한 이중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지원은 가족에 대한 역할 스트레스를 낮춰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제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정부 지원제도가 가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지원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가족지원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정부지원제도 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 간에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의 지지 여부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려가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지지 여부보다는 여성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 직업의식 등이 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 참여 의욕 간의 관계는 가족의 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일하는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직장이나 일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 여부는 경제활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도 양육 문제, 일-가정양립 문제 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포기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잠재노동력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을 유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육아 및 가사부담 및 저출산 등의 해소를 통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의 효과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전달 체계가 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유연근무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등 실행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향후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를 유도하고 양성평등 교육 등 가족 친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는 단순히 근로자의 국한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근로 욕구가 향후 창업 의지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경제활동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불안정한 노동계층 및 취약계층에 있는 사회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의지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특성상 동일방법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방법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설문지 설계 및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검증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근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정치 경제적 요

인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요인과 정부 지원제도 등 일부만을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근로 여성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파악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성 세대별 특성과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곽현주·최은영(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429-456.

김미선·박경숙·김이선(2017). *한국 여성의 생애유형별 가족과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 51-84.

김민선·서영석(2016).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8(1), 63-88.

김민영(2020).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7(2), 1-34.

김민정(2016).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참여 동기가 경제활동 참여 지속의도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김종명(2020).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다니엘핑크(2012). *새로운 미래가 온다*(정지훈·김명철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모정희·김금란(2018).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이 재취업 의사에 미치는 영향: 뷰티관련 직업교육에 종사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3), 259-269.

박남태(2017).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사회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선영(2020).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월간 *한국노총*, 564, 16-17

백인자(2016). *중년기 여성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선한승(2010). *한국여성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공공정책연구*, 17(1), 59-88.

손영미·박정열(2014).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전이에 미치는 조직문화와 지원제도의 영향력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9(4), 111-125.

손정연·한경혜(2014).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4), 185-216.

송징정(2015). *중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결정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신경아(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가지 질문*, *페미니즘연구*, 16(1), 321-359.

- 신연하·이동명(201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10-323.
- 양대현(2016). 대기업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구: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 엄경애(2010).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여경환·관예주·관다영·박옥자(2019). 성장욕구와 경제적 개인주의가 교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21*, 4(35), 527-542.
- 원숙연(2014). 이질동형 동질이형 한국-미국-스웨덴의 여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구조와 함의. *공공정책연구*, 21(2), 171-199.
- 윤영득(2017).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윤혜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중장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상원(2014). *세계음식관광박람회 경연참가자의 동기과 관여도 및 자아성취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이효주·오수연·박성민(2020). 기혼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비교 연구: 여가 및 직장생활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론집*, 32(3), 571-609.
- 임한려·홍성표(2020). 기혼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전이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105(2), 39-68.
- 장서영(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4(1), 79-104.
- 장영미(2018). *시니어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조순일(2009).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혜선(2003). 결혼 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6.
- 최유진·손은정(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4), 749-768.
- 최진숙·이남희·황금주(2019). 경력단절여성의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4), 113-132.
- 한운옥(202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가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향원·하규수(2020).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연구*, 15(5), 77-98.
- 홍성표(2019).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의 경력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Back, I. J.(2016). *Research on job identity formation procedure of middle age wom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 Blau, G.(1993). Operationalizing direction and level of effort and testing their relationships to individual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5(1), 152-170.
- Choi, J. S., & Lee, N. H., & Hwang, K. J.(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Personal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n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4), 113-132.
- Choi, Y. J., & Son, E. J.(2016). The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areer-interrupted women: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1(4), 749-768.
- Daniel H. P.(2012). *A new future is coming*, Seoul, Korea Economic Daily.
- Deci, E. & Ryan, R.(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efendorff, J. M. & Chandler, M. M.(2010). *Motivating Employees*. In S. Zedeck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Gwak, H. J., & Choi, E. Y.(2015). Influence Factor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or Married Women: Focusing on the Gender Unequal Structure in Household and Labor Market. *The Women's Studies*, 88(1), 429-456
- Han, H. W., & Ha, K. S.(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scent Entrepreneurs Motivation and Preparation on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5), 77-98.
- Han, W. O.(202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reemployment need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of career interrupted women: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family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Hong, S. P.(2019).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Resilience of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U.S, Addison-Wesley Pub. Co.
- Jang, S. Y., & Merriam, S.(2004). Korean culture and the reentry motivations of university-graduated women. *Adult Education Quarterly*, 54(4), 273-290.
- Jang, S. Y.(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re-entry to the labor market of women with high education career disconnection. *Women's Study*, 74(1), 79-104.
- Jang, Y. M.(2018). *The Effects of Senio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Jo, H. S.(2003). Som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1), 91-116.
- Jo, S. L.(2009). *Research on Reentry of Women with Interrupted Work Career to Labor Market: Focused on Highly Educated Wom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ang, B. S.(2020). *Impacts of Seniors'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Awareness, and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Kim, J. M.(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art-up Education, Government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on Start-up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 Kim, M. J.(2016). *The Effect of the Gender Role Attitude and Participation Motive on Continuance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 Kim, M. S., Park, K. S., & Kim, I. S.(2017). Perception and Attitudes of Family and Work by Life Types of Korean Women.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Journal of Research Report*, 9, 51-84.
- Kim, M. S., & Seo, Y. S.(2016). Highly Educated Married Korean Women's Career Persistence Motiva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1), 63-88.
- Kim, M. Y.(2020). The Effects of Innovation Capacity on Innovation Performance: With a Focus on Central Government Agency.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17(2), 1-34.
- Lee, H. J., & Oh, S. Y., & Park, S. M.(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Female Workers: With a Focus on the Role of Mediating Effects of Leisure and Work Life Standard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32(3), 571-609.
- Lee, S. W.(2014). *The Affectson Participative Motivationof World Food Tour Expo Conteston Involvementand Self Accomplish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nam University.
- Lim, H. Y., & Hong, S. P.(2020). Work-family transfer typ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female managers. *The Women's Studies*, 105(2), 39-68.
- Manning-Walsh, J.(2005).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between symptom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4(4), 482-493.
- McClelland, D. C.(1961). *Achieving society(No.15)*, Princeton, N.J., Van Nostrand
- Miceli, M., & Castelfranchi, C.(2000). Nature and mechanisms of loss of motiv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3), 238-263.
- Mo, J. H., & Kim, K. R.(2018). The Effects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on Reemployment Intention According to Career Discontinuity Periods: Focus on Career Discontinuity Women Participating in Beauty-Related Job Training.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4(3), 259-269.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N. T.(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dapt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Park, S. Y.(2020). From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to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onthl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564, 16-17
- Ruderman, M. N., Ohlott, P. J., Panzer, K., & King, S. N. (2002). Benefits of multiple roles for managerial wome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2), 369-386.
- Schonfeld, I. S.(2001). Stress in 1st-year women teachers: The context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Genet Soc Gen Psychol Monogr*, 127(2), 133-168
- Son, J. Y., & Han, G. H.(2014). The Effects of the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Korean Baby Boomer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4), 185-216
- Shin, K. A.(2016). 8 Questions about the Changes of the Female Labor Market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6(1), 321-359.
- Shin, Y. H., & Lee, D. M.(2017).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Re-employment Ne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Career Interrupted Woma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9), 310-323.
- Sohn, Y. M., & Park, C. Y.(2014) The comparativ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family support system on the married working women' work-family spillover. *Korean society for Wellness*, 9(4), 111-125.
- Song, J. J.(2015).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Chin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 Sun, H. S.(2010). Employment of Women Workers and Policy Issues in Korea. *Journal of Public Policy*, 17(1), 59-88.
- Um, K. A.(2010). *A Qualittive Stuey on the Career Interrupted and the Child Care of Highly Educated Housewive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 Vansteenkiste, M., Lens, W., & Deci, E.(2006),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contents in self-determination theory: Another look at the quality of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1), 19-31.
- Won, S. Y.(2014). Employment of Women Workers and Policy Issues in Korea. *Journal of Public Policy*, 21(2), 171-199.
- Yang, D. H.(2016). *Study on the factor which influe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 after early retirement of*

officers and staff in large company: Mainly on the support of famil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Yeo, K. W., & Kwan, Y. J., & Kwan, D. Y., & Park, O. J.(2019). The Effect of Growth Need and Economic Individualism on Teacher's Job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Motiv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4(35), 527-542.
- Yoon, H. K.(2007). *An Analysis on Vocational Exploration Experiences of Highly Educated Women with Discontinued Employment : With a focus on the middle-aged participants in the vocation education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Yoon, Y. D.(201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Need of Women with Career Break*,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Working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Park Soon Jung*

Ha Kyu Soo**

Abstract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made and policies have formulated for an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is only 50% and much lower tha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their motivation for economic activities, women's perception of work, and government support recognition. We empirically analyze and examine such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women nationwide to be distributed evenly among various age groups, ranging from thos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50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on a total of 406 people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for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nd self-realization motivation, women's perception of work, and government support was seen as having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 impact of women's work perception on their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family support, and its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Bu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between economic and self-realization motivation, government support recognition, and the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for economic activities

To increase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for economic activities, both support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Government support will also be needed in order to enable women with abundant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Keywords: economic motivation, self-realization motivation, perception of work, government support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1st author, Ph. D. in venture business administration at Hoseo University, juliak3809@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rrespondent, Professor of Venture Management at Hoseo University, ksh@hoseo.edu